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전원** 田園 (밭田 동산園) 논과 밭이라는 뜻으로,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郊外)를 이르는 말. 『한가로운 **전원** 풍경.』 그는 부귀를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와서 청빈한 은거 생활로 일생을 보냈다.  
**생활상** 生活相 (날生 살活 서로相) 생활해 나가는 모습. 『비참한 **생활상**.』 그 필름에는 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동화되는** 同化되는 (같을同 될化) /동화되다/ 성질, 양식(樣式),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되다. 『자연에 **동화되다**.』 내 생활은 차츰 그런대로 그곳 나름의 풍속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조해일, 아메리카>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연상된** 聯想되-ㄴ (잇닿을聯 생각想) /연상되다/ 『심리』 하나의 **관념**으로 인해 다른 **관념**이 불러일으켜지다. 『그의 외모는 한마디로 인도의 건디가 **연상되는** 그런 물골이었다. <전상국, 하늘 아래 그 자리>  
**청아한** 淸雅하-ㄴ (맑을淸 아담할雅) /청아하다/ 속된 티가 없이 맑고 아름답다. 『남양의 달밤을 상상케 하는 애련하고도 청아한 선율에 회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심훈, 상록수>  
**풍경** 風景 (바람風 경치景) 「1」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경치. 『단풍이 곱게 물든 시골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2」 어떤 **정경**\*이나 상황. 『밤 기차 속의 **풍경**. \*정경: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와 경치.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변화하는** 變化하는 (변할變 될化) /변화하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다. 『아이들은 점차 모범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문호 개방 이후로 양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생동감** 生動感 (날生 움직일動 느낄感)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복잡한 시장 안에서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만족감** 滿足感 (찰滿 발족 느낄感) **만족한\*** 느낌. 『오늘 드디어 일을 마쳤다는 **만족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족하다**: 「1」 마음에 흡족하다. 『**만족한** 얼굴. 「2」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만족**한 생활을 즐기다. 『이 공사는 두 달이면 **만족**하리라 본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보기>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풍요로운** 豐饒롭-은 (풍년豐 넉넉할饒) /풍요롭다/ **흥뻑** 많아서 넉넉함이 있다.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저축을 하다.  
**결실** 結實 (맺을結 열매實) 「1」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몐. 또는 그런 열매. ≒열매맺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비슷한 말』 결과(結果)\* 「2」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 또는 그런 성과. 『성실한 노력의 **결실**.  
\***결과(結果)** 「1」 열매를 맺음. 또는 그 열매. ≒과. 「2」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미가 나타난다.  
**한가로운** 閑暇롭-은 (한가할閑 한가하게 지낼暇) /한가롭다/ **한가한\*** 느낌이 있다. \***한가하다**: 겨를\*이 생겨 여유가 있다. \*겨를 ≒ 틈  
**흥취** 興趣 (일어날興 흥취趣) **흥\*과 취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 『**흥취**를 돋우다. \***흥**: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 \*\***취미**: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것.  
**고독** 孤獨 (외로울孤 홀로獨)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지금 내가 유폐되어 있는 이 철저한 **고독**과 피로와 무력감의 탑을 그대가 상상할 수 있다면...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해소하려는** 解消하려는 (풀解 꺼질消) /해소하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 『실업 문제를 **해소**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운치** 韻致 (운韻 이를致) **고상**하고 **우아**한 멋. ≒운격. 『그 집의 정원은 **운치**가 있어 보인다. 『자꾸만 추억을 향해 **줄달음치려는** 여자의 앞길을 남자는 전혀 **운치**를 모르는 투박한 대꾸로 번번이 가로막고 있었다. <윤홍길, 완장>  
**풍류** 風流 (바람風 흐를流)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 『학선이가 정자에 앉아서 화주 한 잔을 드는데, 과연 설경 가운데 앉은 **풍류**가 그럴듯하였다. <황석영, 장길산>  
**흥겨운** 興겹-은 (일어날興) /**흥겹다**/ 매우 **흥**이 나서 즐겁다. 『**흥겨운** 노래. 『개천에서 아낙네들이 두드리는 **빨랫방망이** 소리가 **방정맞고도 흥겨웠다**. <박완서, 미망>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보기>

17세기 가사 「월선현삼속경가」는 월선현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경관** 景觀 (경치景 볼觀)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경관**이 빼어나다. 『설악산의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  
**유유자적**한 悠悠自適하-ㄴ (멀悠 스스로自 갈適) /유유자적하다/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다**. ≒유연자적하다. 『그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며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종종 세속을 떠나 **유유자적**하는 나그네의 삶에 매력을 느낀다.  
**관심** 關心 (빚장關 마음心)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외모에 **관심**을 두다. 『그는 다년간 노인의 복지 문제에 **관심**을 쏟아 왔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보기>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여유로운** 餘裕롭-은 (남을餘 넉넉할裕) /여유롭다/ **여유\***가 있다.  
\***여유(餘裕)** 「1」 물질적·공간적·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돈이 **여유**가 있으면 빌려 다오. 「2」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현장감** 現場感 (나타날現 마당場 느낄感)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 『좀처럼 붙잡아 낼 수 없던 전정터의 그 **절박한 현장감**을 생생하게 실감함으로써... <김인배, 방울뱀>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만경 萬頃 (일만萬 이랑頃) 아주 많은 이랑이라는 뜻으로,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이번 여정에 남겨 놓은 죽적을 더듬어 보니, 운파 만경의 호남 천지를 종횡무진하게 유량한 거리가 무려 3천7백여 리였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황운 黃雲 (누를黃 구름雲) 「1」 누런 빛깔의 구름. 「2」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유 比喻 (견줄비 깨달음喩)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기보다 그들이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비유의 말로 가진 자를 깨우치기는 하겠지만...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게'와 살진 '눌은 닭'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풍족함 豐足하-ㅁ (풍년豐 발足) /풍족하다/ 매우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다. 『살림이 풍족하다.』

색채 色彩 (빛色 채색彩) 「1」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빛깔. 『색채가 질다.』 「2」 사물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 따위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경향이나 성질. 『종교적 색채를 띠다.』

이미지 image 「1」 『문학』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상상. 『이 작품은 청각적 이미지가 뛰어나다.』 「2」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서민적 이미지.』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생업 生業 (날生 업業)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 『생업에 종사하다.』 『이곳 사람들은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단함 고단하-ㅁ /고단하다/ 「1」 【...이】 몸이 지쳐서 느른하다. 『몸이 고단하다.』 「2」 일이 몹시 피곤할 정도로 힘들다. 『우리가 못 먹고 일이 고단해서 얼굴이 타는 것이 아니고... <문순태, 타오르는 강>』 「3」 【...이】【...기가】 처지가 좋지 못해 몹시 힘들다. 『삶이 고단하다.』

설의 設疑 (베풀設 의심疑) 의문을 내세움.

편집자 해설) '설의적(인) 표현' ≡ 설의법\*.

\*설의법 設疑法 『문학』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채로운 多彩롭-은 (많을多 채색彩) /다채롭다/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한데 어울리어 호화스럽다. ≡컬러풀하다. 『가를 운동회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제시하며 提示하며 (골提 보일示) /제시하다/ 【...에/에게 ...을】 「1」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 『그가 학계에 제시한 가설은 20년 만에 증명되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공사가 돌아갔다.』 「2」 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이게 하다.

감정 感情 (느낄感 뜻情)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감정이 풍부하다.』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헛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여유 餘裕 (남을餘 넉넉裕) 「1」 물질적·공간적·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생활에 여유가 없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빌려다오.』 「2」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에 여유를 두고 잘 생각해 보아라.』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청유형 請誘形 (청할請 꺾誘 형상形) 『언어』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 '자꾸나', '세', '읍시다' 따위가 붙는 꼴이다.

표현 表現 (겉表 나타날現)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 『표현 방법이 서투르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들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묘사 描寫 (그릴描 베낄寫)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심리 묘사.』 『상황 묘사.』 『사실에 바탕을 둔 충실한 묘사.』 『생생한 현장 묘사.』 『그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 묘사가 뛰어나다.』

활용해 活用하-아 (살活 쓸用) /활용하다/ 「1」 【...을 ...에】【...을 ...으로】 충분히 잘 이용하다. 『여가를 자기 계발에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장운이란 녀석은 지게질이 처음이랑데도, 지게 고다리와 매기를 곧잘 활용하고 있었다. <이문구, 장한몽>』 『놀리는 땅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다.』 「2」 『언어』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다.

설의적 표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엇느냐 -만홍(윤선도)  
→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운 것은 아니다.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병산육곡(권구)  
→ 꽃을 떨어뜨리는 사나운 바람이 불어 어느 가지에도 의지하기 어렵다.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 지난날의 꿈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언급하여 言及하여 (말씀言 미칠及) /언급하다/ 【...에】【...을】【-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하다. 『그 평론가는 앞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관은 앞으로 개혁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양 미술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결백 潔白 (깨끗할潔 흰白) 「1」 깨끗하고 힘. 「2」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출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음. 『결백을 주장하다.』 \*조출하다: 아담하고 깨끗하다. \*\*허물: 「1」 잘못 저지른 실수. 「2」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홍.

입증하고 立證하고 (설立 증거證) /입증하다/ 【...을】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 『알리바이를 입증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심리적** 心理的 (마음心 다스릴理 과녁的)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에 관한**. 『**심리적** 부담감. 『**심리적** 안정을 찾다.

**거리감** 距離感 (떨어질距 떠날離 느낄感) 「1」 어떤 대상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느낌. 「2」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간격이 있다는 느낌**. **보통 친숙하지 않아 서로 마음을 트고 지낼 수 없는 서먹서먹한 느낌을 이른다**. 『20년의 연령 차에서 오는 세대의 **거리감**을 그는 억지로 부인해 본다.<전광용, 꺼삐딴 리>

**자제**하고 自制하고 (스스로自 억제할制) /**자제**하다/ 【…을】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다. 『**욕구를 자제**하다. 『**흥분을 자제**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관련된** 關聯되-ㄴ (빗장關 잇닿을聯) /**관련**되다/ 【(…과)】 【…에】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얽혀서 가까운 관계에 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

**열거**하며 列擧하며 (벌일列 들擧) /**열거**하다/ 【…을】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죽 늘어놓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열거**하라.

**무력감** 無力感 (없을無 힘力 느낄感)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경기에서 너무 벅찬 상대를 만나면 **무력감**이 든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자 그는 **무력감**에 빠졌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4번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살피려** /살피다/ 【…을】 「1」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 『**사방을 살피**다. 「2」 형편이나 사정 따위를 **자세히** 알아보다. 『**민심을 살피**다. 「3」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 보다.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잡아,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며,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한다는 뜻이다.<박목월, 구름의 서정> 『**가부(家夫)** 잃어 텅 빈 집안에 **가주(家主)**가 되게 생긴 저의 전후를 **살피**를 적에, 저까지 정신을 잃고 수심에만 잠길 수는 없는 탓이올시다.<최명희, 혼불>

**공감**하고 共感하고 (함께共 느낄感) /**공감**하다/ 【…에】 【…을】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다. 『그들의 분노에 **공감**하다. 『아마도 제 주장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4번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대과** 大科 (큰大 품등科) 『역사』 **과거(科擧)의 문과와 무과를 소과(小科)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급제** 及第 (미칠及 차례第) 「1」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합격**함. 「2」 『역사』 **과거에 합격**하던 일.

**사욕** 私慾 (사사로울私 욕심慾)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는 욕심.

**평한** 評하-ㄴ (품평評) /**평**하다/ 【…을 -게】 【…을 -고】 -고) ((‘…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좋고 나쁨, 잘하고 못함, 옳고 그름 따위를 평가**하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좋게 **평**하였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현실** 現實 (나타날現 열매實)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분단 현실**. 『**어려운 농촌 현실**. 『**현실**을 직시하다.

**대처**하는 對處하는 (대답할對 곳處) /**대처**하다/ 【…에】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밝**히고 /**밝**히다/ ■ 「6」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 『**사리를 밝**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일은 꼭 진실을 꼭 **밝**히고야 말겠다. ■ 【…에/에게 …을】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 『**언론**에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밝**히다. 『**경찰**에게 이름과 신분을 **밝**히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4번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영화** 榮華 (꽃榮 빛날華)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돈이나 권세**나 세상의 모든 **영화**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잠깐 머무나 곧 지나가는 것이니라.<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중시**하는 重視하는(중요할重 볼視) /**중시**하다/ 【…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하게 여기**다. =중대시하다. 『**개성을 중시**하다. 『**전통**을 **중시**하다.

**가치관** 價值觀 (값價 값值 볼觀) 『심리』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事象)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이다. 『**낡은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4번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롱**’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미치지** /미치다/ 「1」 【…에/에게】 【…으로】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달**다. 『우리 편 선수는 결승점에 못 **미쳐**서 넘어지고 말았다. 「2」 【…에/에게 (…을)】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 『이번 광고는 판매량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품** 性品 (성품性 물건品) 「1」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강직한 성품**. 『**성품**이 까다롭다. \***강직**하다: 마음이 깨끗하고 곧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5번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은거** 隱居 (숨을隱 살居) 「1」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살**. 「3」 **예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던 일.

**정치** 政治 (정사政 다스릴治)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편집자 주: 고전시가에 나타난 **정치**는 화자가 신하로서 임금을 돕는 모든 행위로 이해하면 됨.)

**미련** 未練 (아닐未 익힐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미련**을 버리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5번

②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복귀하려는** 復歸하러(고 하)는 (다시復 돌아올歸) /복귀하다/ 【…에】 …으로】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다. 『정계에 복귀하다. 『그는 이번 타이틀전에서 다시 정상에 복귀하였다.

**신뢰** 信賴 (믿음信 힘 입을賴) 굳게 믿고 의지함. 『그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회 의원이다.

**소망** 所望 (바所 바랄望)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졌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5번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갈등하여** 葛藤하여 (칠패 등나무藤) /갈등하다/ 「1」 칠패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적대적인 위치의 두 계급은 필연적으로 반목하고 갈등한다. <<최명희, 혼불>>

「2」 『심리』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목표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동생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어느 학과를 가야 할지 갈등하고 있다. 『아내의 재산의 행방을 은근히 탐색하려는 마음과 그걸 치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늘 갈등하고 있었다. <<박완서, 미망>>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5번

⑤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이상** 理想 (다스릴理 생각想) 「1」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이상을 향한 열정. 『높은 이상을 품다. 「2」 『철학』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

**폐단** 弊端 (폐단弊 바를端)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폐. 『폐단을 없애다. 『선비들이 그 서원을 근거 삼아 가지고 행하는 폐단은 여간이 아니었다. <<김동인, 운현궁의 봄>> \*경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현실 도피적 경향. 『상업주의 경향을 띤 소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0번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흑부리 영감과 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묵인했지만** 默認하였지만 (잠잠할默 알認) /묵인하다/ 【…을】 모르는 채 하고 하려는 대로 내버려 둬으로써 슬며시 인정하다\*. 『부정행위를 묵인하다. 『불법 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사원들의 토요일 자유 복장 근무를 묵인하는 차원에서 허용해 왔다.

\*인정하다: 「1」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권위를 인정하다. 『범행을 인정하다. 『아무도 그를 진정한 승리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나도 그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은 했다고 인정한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5번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완상하며** 玩賞하며 (희롱할玩 상줄賞) /완상하다/ 【…을】 즐겨 구경하다. 『고대의 미술품을 완상하다.

**번뇌** 煩惱 (괴로워할煩 괴로워할惱) 「1」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 『사실 초봉이는 승재를 못 잊어 하는 번뇌가 있기는 있으면서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 환경이 불만인 것은 아니다. <<채만식, 탁류>>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5번

④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체념하면서도** 諦念하면서도 (살필諦 생각할念) /체념하다/ 【…을】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다**\*.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체념하는 편이 낫다. \*단념하다: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 버리다.

**외면하면서** 外面하면서 (바깥外 낯面) /외면하다/ 【…을】 「1」 마주치기를 꺼리어 피하거나 얼굴을 돌리다. 「2」 어떤 사상이나 이론, 현실, 사실, 진리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하다.

**염원** 念願 (생각할 바랄 )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함. 또는 그런 것. 『우리 겨레의 염원.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0번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당황한** 唐惶하-니 (당나라唐 두려워할惶) /당황하다/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창황하다. 『그 사람은 엉뚱한 질문으로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태에 당황하고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다.

**내색** 내色 (빛色) 마음속에 느낀 것을 얼굴에 드러냄. 또는 그 낯빛. 『즐거운 내색을 감추지 못한다. 『주인은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안 했으나 속으로는 비웃음과 함께 강한 경멸감이 뭉클 솟는다. <<홍성원, 육이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0번

④ 흑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치 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자초지종** 自初至終 (스스로自 처음初 이룰至 마침終)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도난품을 되찾게 된 자초지종은 대략 이랬다. 『나는 이제까지의 자초지종을 다시 더듬거리며 신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후명, 별보다 멀리>>

**염려** 念慮 (생각할念 생각할慮)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추위 타는 나무와 화초 뿌리는 움에 갈 무리해 놓았으니 얼어 죽을 염려는 없었다. <<박완서, 미망>>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0번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의식하여** 意識하여 (뜻意 意識) /의식하다/ 【…을】 「1」 어떤 것을 두드러지게 느끼거나 특별히 \*염두에 두다. 『남의 눈을 의식하다. 「2」 생각이 미치어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를 깨닫거나 느끼다. 『그들이 다가오는 순간 나는 뭔가 큰일이 닥쳤음을 의식했다.

\*염두: 「1」 생각의 시초. 「2」 마음의 속. =마음속. 『염두에 두다.

**우울해** 憂鬱하여 (근심憂 歎鬱) /우울하다/ 【…이】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 『비 오는 날은 대체로 기분이 **우울하게** 느껴진다. \*근심스럽다: 보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데가 있다. \*\*활기: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1번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궁핍** 窮乏 (다할窮 乏) 몹시 **가난함.** 『계모 밑에서 자라난 종대로서는 핍박과 **궁핍**의 고통보다도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사랑이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인호, 지구인>

**내면** 內面 (안內 靛面) 「1」 물건의 안쪽.=안면. 『동물의 두개골 내면은 뇌의 표면 주름에 대응하는 요철면을 이루고 있다. 「2」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정신적·심리적 측면**을 이른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내면** 깊숙이 잠재해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1번

⑤ ‘거레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레를 끊지 않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표** 標 (표標) 「3」 같은 종류의 다른 사물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물만의 두드러진 특징.**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표**가 얼굴에 나타나 있다.

**형편** 形便 (형상形 편할便) 「1」 일이 되어 가는 상태나 경로 또는 결과. 「2」 **살림살이의 형세.** 『**형편**이 여의치 않다.

**유대감** 紐帶感 (멜紐 띠帶 느릴感)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 『친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과보호가 점차 나를 옥죄는 것 같아 그게 참을 수 없이 짜증스러웠다.<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2번

⑤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심리** 心理 (마음心 다스릴理) 「1」 『**심리**』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사람의 **심리**란 참 묘한 거야. 『환자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의식: 「1」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의식을 잃다. 『의식이 돌아오다.

**공감**하겠군 共感하겠군 (함께共 느릴感) /공감하다/ 【…에】 【…을】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다.** 『그들의 분노에 **공감**하다. 『그들의 쓰라린 고통을 **공감**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1번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각별한** 各別하-ㄴ (각各 다를別) /각별하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 『**각별**하다. 『그는 사진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였다. \*유달리: 여느 것과는 아주 다르게.

**애정** 愛情 (사랑愛 뜻情) 「1」 **사랑하는 마음.** 『기출에 대한 **애정.** 「2」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애정**을 고백하다.

**운영**하던 運營하던 (운전할運 경영할營) /운영하다/ 【…을】 「1」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관리하고 \*운용**하다. 『기업을 **운영**하다. 「2」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가다. 『동생은 화물차 석 대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운용하다: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쓰다. 『**법**을 **운용**하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1번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흑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상대**하게 相對하게 (서로相 대답할對) /상대하다/ 【…과】 【…을】 「1」 서로 **마주 대하다.** 『그녀가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그녀와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환자를 **상대**하다. 보니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2」 서로 겨루다. 『그들과 **상대**하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다.

**이해**타산 利害打算 (이로울利 해로울害 칠打 계산算) **이해**관계를 **이모저모 모두 따져 봄.** 또는 그런 일. 『**이해**타산이 이만큼 밝은데 왜 부자가 못 되라고 그는 은근히 자기의 지혜를 탄복하였다. <이기영, 고향>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2번

④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겠군.

**제한**하여 制限하여 (억제할制 한계限) /제한하다/ 【…을】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다. 『차량 통행을 **제한**하다.

**묘사**했다고 描寫하였다 (그릴描 베낄寫) /묘사하다/ 【…을】 【…을 …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다. 『성격을 잘 **묘사**한 작품.

**장면** 場面 (마당場 靛面) 「1」 어떤 장소에서 길로 드러난 면이나 벌어진 광경. 『추억 속의 한 **장면.** 「2」 **영화, 연극, 문학 작품 따위의 한 정경(情景).** 같은 인물이 동일한 공간 안에서 벌이는 사건의 광경을 이른다. 『섬세한 **장면** 묘사. 『전투 **장면**을 찍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 무대는 거실로 변한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3번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곤경** 困境 (괴로울困 지경境)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초행길에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떨어져서 **곤경**에 빠졌다.

**처**하게 處하게 (곳處) /처하다/ 「1」 【…에】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인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2」 【…을 …에】 어떤 책벌이나 형벌에 놓이게 하다. 『살인범을 사형에 **처**했다.

**심화**된 深化되-ㄴ (깊을深 될化) /심화되다/ 【(…을)】 **정도나 경지가 점점 깊어지다.** 『지역감정이 **심화**되다. 『책을 많이 읽으면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심화**되고 정서가 풍부해진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4번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비유적** 比喩的 (견줄비 깨달을喩 과녁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사물: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진술** 陳述 (늘어놓을陳 지을述) 「1」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문학 행위는 자기 진실의 가장 성실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청준, 조율사>

**부각하고** 浮刻하고 (플浮 새길刻) /부각하다/ 「1」 【…을】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하다. 『그 작품에서는 방황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부각하여 드러냈다. 「2」 【…으로】 주목받는 사람, 사물, 문재 따위로 나타나다. 『서울은 아시아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4번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환심** 歡心 (기뻐할歡 마음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환심을 사다. 『동네 사람들의 환심을 잃다.

**우월한** 優越하-나 (넉넉할優 넘을越) /우월하다/ 【…보다】 다른 것보다 낫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는 나보다 수학 실력이 우월했다.

**지위** 地位 (땅地 자리位) 「1」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사람은 모름지기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는 겸손해야 하는 법이요.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신분: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 (편집자 주: 봉건사회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도 존재함. 공식적 세습 여부가 차이임.) 「2」 어떤 사물이 차지하는 자리나 위치.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5번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연마하는** 練磨하는 (익힐練 갈磨) /연마하다/ 「1」 주로 돌이나 쇠붙이, 보석, 유리 따위의 고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하다. 「2」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다. 『무술을 연마하다. 『그들은 협동 정신을 기르고 강인한 체력을 연마하였다.

**덕행** 德行 (덕德 다닐行)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 『과거가 시행되는 해의 세수(歲首)에는 항상 각 고을에서 재주가 있고 덕행이 뛰어난 선비를 감사께 추천하여 벼슬길을 마련해 준다는 관례를 알고 있소? <유현종, 들불> \*어질다: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 \*\*너그럽다: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행실: 실지로 드러나는 행동.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5번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한탄** 恨歎 (한할恨 탄식할歎)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또는 그 한숨. 『한탄을 금치 못하다.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한탄이 앞선다.

**계책** 計策 (꾀할計 꾀策)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나 방법을 생각해 냄. 또는 그 꾀나 방법. 『이는 나의 병권을 빼앗으려 함이 아니고 나를 살려 내고자 하는 계책이었다. <김구, 백범일지>

**외로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인내하는** 忍耐하는 (참을忍 견딜耐) /인내하다/ 【…을】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4번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타인** 他人 (다를他 사람人) 다른 사람. 『말씨뿐만 아니라 서희의 태도는 생모를 타인으로 치부한\* 듯 태연하다. <박경리, 토지> ≙ 타자

\*치부하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보거나 여기다.

**원망** 怨望 (원망할怨 바라望) 못마땅하게\* 여기어 닳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원망에 찬 얼굴. 『원망을 사다.

\*못마땅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

**의문형** 疑問形 (의심할疑 물을問 형상形) 『언어』 용언 및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의 하나.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느냐, ‘-는가’ 따위가 붙은 꼴이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4번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추정하는** 推定하는 (옳길推 정할定) /추정하다/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우리는 그를 대학생이라고 추정하였다. \*미루다: 「3」 이미 알려진 것으로써 다른 것을 비추어 헤아리다.

**토로하는** 吐露하는 (토할吐 드러낼露) /토로하다/ 【…에/에게 …을】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하다. 『어머니께 **흥금\***을 토로하다. \*흥금: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 『친구에게 심정을 토로하다.

**우려** 憂慮 (근심憂 생각할慮) 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심과 걱정. 『우려를 낳다. 『환경 보호 단체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5번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불신** 不信 (아닐不 믿을信) 믿지 아니함. 또는 믿지 못함. 『불신이 팽배해 있다. 『그에 대한 불신은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조소** 嘲笑 (비웃을嘲 웃을笑) **흥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 =비웃음\*\*\*. 『조소를 퍼붓다. 『친구들의 조소를 받다. 『입가에 조소를 머금다.

\*빈정거리다: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리다.

\*\*업신여기다: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35번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선후** 先後 (먼저先 뒤後) 먼저와 나중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시비** 是非 (옳을是 아닐非) 「1」 옳음과 그름. ≙이비. 『시비를 따지다. 『시비를 가리다. 「2」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 『시비가 붙다. 『시비를 걸다.

**오해** 誤解 (그릇할誤 풀解)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앎.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

**해소하는** 解消하-려는 (풀解 꺼질消) /해소하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 『실업 문제를 해소하다.